

# 전 남

### 88개 점포 다닥다닥... 장날엔 노점상마저 가득

## 합평 5일장 화재땀 대항참사

### 소방차 진입로 확보 시급

매월 2·7일 장이 열리는 합평 5일 재래시장에 소방차 통행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번질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88개의 소형 점포(장옥)를 갖춘 합평 5일 재래시장은 지난 2006년 지붕 및 점포시설 현대화 사업을 마쳤으며, 현재 5일시장 상인회가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다 통행로 또한 비좁아 겨우 1~2명의 행인들이 비껴갈 정도다.

특히 장날이면 옛 버스터미널 쪽과 천변 쪽에서 시장으로 향하는 두 곳의 진입로에는 노점상이 진출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상인 김모(44)씨는 "장옥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물건이 가득 쌓여 있

어 한번 불이 나면 견줄 수 없는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노점상을 정비해 소방로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주민 정모(56)씨는 "두 군데 출입구 없어 무질서하게 노점상들이 들어 있어 시장 진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기에도 옛 터미널 부근 도로의 경우 불법 주정차가 판쳐 군청 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점상 상인들은 "합평 5일 시장이 생길 때부터 노점을 해왔는데, 지금에서야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굶어 죽으라는 얘기"라며 "고객

이나 소방차들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합평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소방로 확보현황을 실시해왔으나, 노점상 상인들의 마찰로 인해 도중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최근 읍소재지 주차난 해소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5일시장 주변에 차량 8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용 주차장을 마련한 바 있다. /합평=황은희기자 hwang@

## 소외계층 월동준비에 10대 천사들 나섰다

### 합평 학다리고 '날개봉사단' 연탄전달

불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합평지역 학생들이 직접 소외계층의 월동준비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들은 합평 학다리고등학교(교장 장철진) 봉사 동아리 단체 '날개봉사단' 소속 학생 20명(지도교사 최병준)이다.

'날개봉사단' 학생들은 학기초에 편가 보람 있는 일을 해보고자 뜻을 모아 한 톨 두 톨 적립한 돈으로 연탄 300장을 구입해 지난달 27일 학교면 율호리 응호마을 양장원씨 가정에 전달했다.(사진)

봉사단 양승 학생은 "평소 주변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실천할 기회가 없어 아쉬웠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보람있는 일을 하게 된 것 같다



뜻깊은 마음으로 연탄을 전달했다. 지난 1999년 구성된 '날개봉사단'은 해마다 연간 계획을 세워 '늘토'(쉬는 토요일)에 합평 성에양로원과 나누 부활의 집, 이화 영아원, 합평 공공도서관 등을 방문해 목욕봉사, 원내 청소, 학습지도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합평=황은희기자 hwang@

## 담양 죽녹원 내년부터 입장료 인상

'전국 웰빙관광 1번지' 담양군 죽녹원이 죽향문화체험마을의 정상 운영에 따라 내년부터 입장료가 인상된다.

1일 담양군에 따르면 담초 죽향문화체험마을을 개장한 지난 4월 인상하려던 것을 경기불황으로 인한 관광객들의 입장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뤘으나, 내년 1월 1일부터 입장료를 인상해 운영기로 했다.

현재 어른 1천원인 입장료를 2천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1천원, 청소년과 군인은 700원에서 1천50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또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 어른단체는 1천600원, 어린이 단체 600원, 청소년과 군인단체는 1천원을 적용한다.

군은 인상된 입장료 수입을 전역 죽녹원과 죽향문화체험마을 시설물 관리와 기반 시설에 재투자해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연 100만명이 힐링받는 관광객이 죽녹원과 죽향문화체험마을을 찾고 있어 대나무숲 산책로를 비롯해 편의시설 등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해 입장료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한편 죽녹원과 죽향문화체험마을은 만 6세 이하의 미취학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담양군민들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담양=노정훈기자 cjoh17@



'바다항기 가득' 자연산 굴 채취 1일 강진군 도암면 갯벌에서 주민들이 자연산 석화(石花·굴)를 채취하고 있다. '바다에서 나는 우유'로 불리는 석화는 '글리코겐'을 비롯해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등이 다양 함유돼 있다. <강진군 제공>

## 여수 스토리텔링 이번엔 '금거북'

### 시 중간보고회, 열두거북 탄생 설화 등 소재 발굴

여수시가 스토리텔링으로 '금거북'을 선정, 관련 관광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올 6월부터 스토리텔링을 위해 문헌·현장조사를 통한 지역인물와의 인터뷰, 전문가들의 수차례 자문을 통해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우수한 스토리 소재를 발굴했다.

이는 여수시 관광산업의 새로운 전가마련을 위해 추진중인 '유일무이 여수 스토리텔링사업' 1차 사업 '여수

가 감춰둔 47가지 이순신 이야기'에 이은 2차 사업이다. 2차 사업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신화·전설·민담 등을 소재로 한 금 거북을 상징테마로 기획·발굴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중간보고회를 통해 항일암 금 거북 등 총 12개의 석 같은 우수한 스토리 소재를 발굴했다. 스토리 전개는 열두거북 탄생 설화, 금거북과 명당터, 열두거북 열거마를 위해 추진중인 '유일무이 여수 스토리텔링사업' 1차 사업 '여수

이와 함께 여수지역 3개의 만과 317개의 섬을 구체적인 테마로 설정했다. 돌산도는 항일암, 응두래미 전설 등을, 남면은 금오도 이야기, 연도의 솔랭이굴, 안도의 전설 등을 손꼽았다. 화정면은 개도 막걸리, 사도 용미암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여수만, 여자만, 가막만은 이야기가 있는 관광코스 재구성한 자료를 준비한다. 시 관계자는 "은 가족이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가 있는 관광 1번지를 만들고 싶어 '금거북'을 알린 알수록 재미있고 신화 스토리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규기자 ypark@

### 보성군 향토음식 자원화

#### '차향머문 보성예가' 개관

보성군이 삼차림메뉴 개발과 농가맛집 개관 등 지역 향토음식 자원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보성군은 녹차의 본 고향으로서 청정지역 이미지 확대와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최현민 읍민리에 농가맛집 '차향머문 보성예가'를 개관했다. 이날 개관행사와 함께 그동안 개발한 삼차림 메뉴와 포장음식 등을 전시하고 시식회도 가졌다.

농가맛집의 대표자인 도화자씨는 2009년 보성 토속주인 '강화주'로 전남도 무형문화재 45호로 지정됐다.

군은 보성 향토음식 자원화를 위해 호남대에 연구유역을 의뢰해 녹차, 짓갈, 전어, 녹동정식 등을 개발했다. 또 숙명여대 한국음식연구원에서 전사·시식회와 사계절 삼차림으로 보성군의 다양한 향토음식 개발 가능성을 선보였다.

정중해 군수는 "보성군 지역 농·특산물을 제대로 개발한 향토음식들은 앞으로 관광객들에게 보성군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 순천검찰 '사랑의 감장김치 담그기'

### 해남군 생활환경 정비사업 마무리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주태)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남 동부지역협의회 사회봉사분과는 1일 순천지청 구내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감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순천지청장을 비롯한 검찰직원과 범죄예방위원, 자원봉사자 등 500명이 참여해 3천만원 상당의 배추 7천포기를 담가 관내 50개 복지시설과 어려운 이웃 등 모두 1천 가구에 50개 전달했다.

순천검찰 사회봉사분과는 지난달 3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사랑의 정을 나누며 범죄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출범, 이번이 첫 번째 활동에 나선 것이다.

조주태 지청장은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범죄예방위원들의 지속적인 사회봉사를 통해 우리 지역이 따뜻하고 살맛나는 세상이 되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해남군은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마무리에 한창이다.

1일 군에 따르면 2009년 오지개발사업으로 복원면 운전지구 도로 확·포장사업 등 4개면의 생산기반시설정비, 복지회관신축 등 13건에 30억원을 투자했다. 또 정주권사업으로 송지면 도로포장 및 하수도 정비 등 5개 권역에 15억 원을 들여 현재 9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비좁은 마을 진입로가 2차선으로 확장되고,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던 농로확장은 물론 옹벽수로 등이 정비돼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와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은 모든 사업을 내실있고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과 착공 이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최대한 반영했다. 또 모든 공사를 추수기에 앞서 완료함으로써 재해예방과 농사철 영농편의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남=박희정기자 dia@

공인중개사: 강영희 ☎ 0621364-8700 H.P 010-4608-3700					(주)국민법률경매					박영진이사 ☎ 0621367-3005 H.P 011-642-2640				
<b>예매본</b>														
<b>지역</b>					<b>토지(전, 답, 임야, 대지)</b>					<b>토지(전, 답, 임야, 대지)</b>				
지역	소재지	면적/건물	감평가	최저가	지역	소재지	면적/건물	감평가	최저가	지역	소재지	면적/건물	감평가	최저가
전남	광주	경계 112/96	19억1천	7억4천	전남	광주	경계 112/96	19억1천	7억4천	전남	광주	경계 112/96	19억1천	7억4천
<b>군면</b>														
지역	소재지	면적/건물	감평가	최저가	지역	소재지	면적/건물	감평가	최저가	지역	소재지	면적/건물	감평가	최저가
담양군	합평	경계 112/96	19억1천	7억4천	담양군	합평	경계 112/96	19억1천	7억4천	담양군	합평	경계 112/96	19억1천	7억4천
<b>읍면</b>														
지역	소재지	면적/건물	감평가	최저가	지역	소재지	면적/건물	감평가	최저가	지역	소재지	면적/건물	감평가	최저가
담양군	합평	경계 112/96	19억1천	7억4천	담양군	합평	경계 112/96	19억1천	7억4천	담양군	합평	경계 112/96	19억1천	7억4천
<b>읍면</b>														
지역	소재지	면적/건물	감평가	최저가	지역	소재지	면적/건물	감평가	최저가	지역	소재지	면적/건물	감평가	최저가
담양군	합평	경계 112/96	19억1천	7억4천	담양군	합평	경계 112/96	19억1천	7억4천	담양군	합평	경계 112/96	19억1천	7억4천